



## 무주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

무주소방서는 지난 7일 소방서장,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여성의용소방대 대장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임하는 유일숙 대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 선물을 전달받았다. 유 대장은 재임 중 다양한 의용소방대 활동을 이끌며 지역 안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신임 이숙민 대장은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앞으로 무주여성의용소방대를 이끌게 되었다. 이 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재난 예방과 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경수 서장은 이임하는 유일숙 대장에게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안전을 위해 현신히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취임하는 이숙민 대장에게는 "여성의용소방대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18~19일 무장애 창극 '지지지'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10월 18일과 19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무장애 창극 '지지지'를 개최한다.

무장애 공연(배리어프리, Barrier-Free)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공연에 관람하는데 따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공연으로, 이번 '지지지'는 판소리 흥부기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제비의 시작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창극이며, 제비들이 흥부와 놀부의 역할을 바꿔며 전개되는 이 공연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공연은 국악연주단 단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연출과 각색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대일 수석단원이, 작창은 방수미 지도단원이 맡았다.

공연은 수어통역, 자막해설,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형식으로 진행, 4명의 수어통역사가 실시간으로 배우들의 노래와 대사를 통역하고 자막은 무대 양옆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며, 음성해설은 방수미의 목소리로 전달해 창극의 몰입감을 높인다.

한편 오는 10월 24일과 25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서울)에서 소속기관 간 교류공연으로 '지지지'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운봉라이온스클럽, 주거환경정비 봉사

남원시 운봉읍은 7일 운봉라이온스클럽(회장 김영일) 회원들이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2가구의 주거환경 정비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클럽은 매년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주거환경정비 개선을 돋고 있으며, 이번 봉사는 특별히 운봉을 맞축인 폭포지역 1일 1가구 방문을 통해 밟았던 가구가 집 안과 밖에 방치된 쓰레기와 악취로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날 클럽 회원들은 미당 폴 베기를 시작으로 적재된 쓰레기 수거 및 청소로 꾸준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김영일 회장은 "앞으로도 운봉을 주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한철수씨, 무주군에 꿀 100병 기탁

무주군은 지난 7일 한철수 씨(한국인봉협회 무주군지회 회장)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저소득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꿀 50kg(500gx100병, 130만 원 상당)을 기탁해왔다고 밝혔다.

한철수 씨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벌을 쳐서 얻은 꿀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게 돼 뿌듯하고 기쁘다"며 "우리 이웃들이 꿀에 좋은 꿀로 환절기 건강 잘챙기고 또 항상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울려울도 떠뜻하게 나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어르신·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한문철TV, 교통약자 안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교통안전 물품 기증

전북자치도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한문철 대표가 전북을 찾아 교통안전 물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



는 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전국이륜차배달리더협회 소속 배달업 종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반광 판조우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의 재난 현장 봉사자들에게 제공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한문철 변호사와 한문철TV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들이 교통약자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전은지역사랑봉사단, 고창 희망샘학교에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대장 백종일)은 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고창 희망샘학교(원장 김정강)에 지역사랑성금 4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 성금으로 지난 6월 총 지원규모 5,0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 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 중 한 곳으로 선정된 희망샘학교는 병원에서 6호 처분(이동복자방)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서 강제 입학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이동 보호 치료시설로 보호자에게 양육 지식 제공 및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돋우기 위한 '우리 가족 꽃길만 걷자! JB가족캠프'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희망샘학교는 오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캠프 참여 10가족 30명에게 부모 교육, 가족 상담 원예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부모와 아동 간 관계 회복,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희망샘학교 김정강 원장, 전북은행 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고창지점 주용원 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 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청년 이동 보호 치료시설에 처음 방문했으며,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가족 캠프를 실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사회 여러 기관을 찾아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남원·장수로 가을 피크닉 여행 떠나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6일 『우리 지역 역사 배우기』 5회차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남원과 장수로 여행을 떠났다.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말을 타보는 경험은 처음이라던 베트남 호시득씨는 "베트남에서도 한번도 타본 적 없는 말을 한국에서 탈 수 있어서 신기했다"며, "찾아가는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이번 여행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 같다. 남은 기간 동안 수강하고 있는 승마 체험을 했다.

이번 여행 프로그램에는 시전에 최대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시·군(△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면 홍보를 진행했다.

여행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남원 구 서도역 영화촬영장과 광한루원에서 피크닉 투어를 제공하고, 장수에서는 승마 체험을 했다.

'우리 지역 역사 배우기' 사업은 남원·장수 가을 여행을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은 종료되나, 내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정원을 즐기며 역사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장수에서는 승마 레저파크에서 승마 체험을 통해

/이만호 기자

## 남원시, 제4회 수어문화제 개최

남원시는 지난 5일 예촌 마당에서 농어인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제4회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수어문화제는 농인과 건청인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며 수어와 농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수어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인과 건청인 6개 팀이 수어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어로 경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수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한 주간의 시정소식을 수어와 사진, 자막 등을 구성된 수어 홍보 동영상 서비스를 제작해 매주 1회 시 홈페이지와 남원시 공식 유튜브 SNS를 통해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시정정보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점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수어문화제를 통해 시민



들의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구천동농협, 설천면민의 날 쌀 소비 촉진 캠페인

구천동농협은 최근 설천면민의 날 행사를 맞아 설천체육공원 내 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은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쌀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쌀밥문화 식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관심과 아침밥을 챙겨먹는 습관을 다시금 강조하며, 나아가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남원 도통동, 취약계층 영양서비스 제공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의 가정에 친환경(10만 원 상당)을 직접 전달하고 가정의 안부를 청진했다.

이번 친환경은 지난 8월 남원 굽네마을 2호점(대표 황성훈)과 10만 원 상당의 친환경을 매월 지원하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지역이동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도통동은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소선자 도통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들이 더 큰 꿈을 갖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